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카디안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6-556호(2026.11.05 ~ 2027.01.31)

카디안 차이나 드래곤 A Share 40 증권자투자신탁(UH)[채권혼합]

2026년 09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모투자신탁(카디안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채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중국 상해 또는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A Share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주식모투자신탁(카디안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에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채권에의 투자는 국공채 등의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 주식에의 투자는 A Share 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 가운데 우수한 기업지배구조와 성장성을 지닌 주식을 선별하여 투자함으로써 투자한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30,443원

-채권모투자신탁 1,050억 원

-주식모투자신탁 713억 원

펀드유형 채권혼합형, 모자형, 종류형
- 채권모투자신탁 편입비: 60% 이상
- 주식모투자신탁 편입비: 4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16년 05월 09일)

- 클래스 A : 2016년 05월 09일
- 클래스 C : 2016년 05월 09일

벤치마크 CSI300 in KRW(T-1) 28% +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22% + KAP Call 10%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5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6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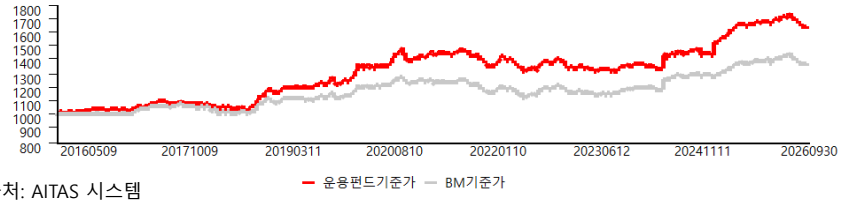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2.40%	-6.90%	-3.32%	-1.46%	16.50%	20.68%	12.34%	61.25%
클래스 A	-2.40%	-6.90%	-3.32%	-1.46%	16.51%	20.69%	12.31%	53.88%
클래스 C	-2.40%	-6.90%	-3.32%	-1.46%	16.48%	20.66%	12.32%	51.60%
벤치마크	-1.91%	-6.46%	-2.84%	-1.15%	10.05%	16.42%	9.19%	34.59%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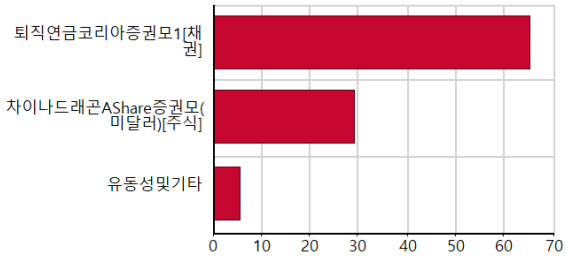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9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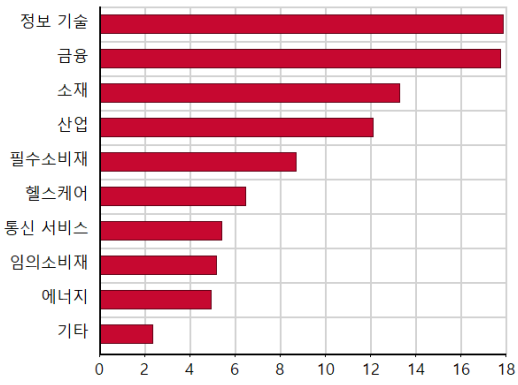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퇴직연금코리아증권모1[채권]	65.5
2	차이나드래곤AShare증권모(미달러)[주식]	29.1
3	유동성및기타	5.5



<주식 업종별>- 주식모투자신탁 편입 비중

순위	업종명	비중(%)
1	정보 기술	17.9
2	금융	17.8
3	소재	13.4
4	산업	12.2
5	필수소비재	8.8
6	헬스케어	6.5
7	통신 서비스	5.5
8	임의소비재	5.2
9	에너지	5.0
10	기타	2.4



상위 보유 종목

종목명(9월말 기준, 주식모투자신탁 주식비중)	비중(%)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td	3.9
WuXi AppTec Co Ltd	3.9
Ping An Insurance Group Co of China Ltd	3.7
Kweichow Moutai Co Ltd	3.6
Tencent Holdings Ltd	3.5

종목명(9월말 기준, 채권모투자신탁 채권비중)	비중(%)
국고03500-2906(26-5)	10.4
국고03625-2809(26-7)	9.5
삼성증권25-2	7.7
산금26신이0106-0721-1	4.8
국고04250-3606(26-6)	4.8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카디안 차이나 드래곤 A Share 40 증권자투자신탁(UH)[채권혼합]

2026년 09월말 기준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0075% (판매 0.5%)
- 클래스 C : 총 연 1.4075% (판매 0.9%)

(공통사항)

운용 0.45%, 신탁 0.045%, 사무관리 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A : 납입금액의 0.7% 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9월 중국 A Share 시장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CSI300 Index(CNY) 기준으로 5.60% 하락하였습니다. 9월 중국 본토 증시는 미국 연준의 매파적 통화정책 기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한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 및 장기 연휴를 앞둔 관망 심리와 차익실현 매물이 더해지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술주 투자심리 악화로 반도체 등 기술주 중심의 조정이 두드러졌으며, STAR50과 ChiNext 지수가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부동산 업종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정책 발표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고, 헬스케어와 은행 등 일부 업종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9월 중국 경제지표는 내수 회복이 제한적인 가운데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며 전월 5.2%보다 개선되었고, 제조업 PMI는 50.1로 전월 49.8에서 상승하며 확장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매판매 증가율도 1.1%로 전월 0.4%보다 반등하였으나, 신용 증가율은 4.8%로 둔화되는 등 내수 및 자금수요 회복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6.3%, 31.0% 증가하였으며, AI 관련 제품과 소비재 수출 확대가 견조한 대외수요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모펀드는 업종배분과 종목선택이 모두 상대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정보기술 업종은 종목선택 효과가 상대성과 개선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으며, 금융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업종에서도 종목선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현금 보유와 헬스케어 업종의 업종배분 효과도 상대성과에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소재 업종은 높은 편입비중과 종목선택 부진이 동시에 나타나 가장 큰 부담 요인이었으며, 산업재와 필수소비재 업종 역시 종목선택 부진으로 상대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9월 채권시장은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추가 긴축 우려가 맞물리며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월 초에는 2027년 예산안 발표에 따른 재정 확대 경계로 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졌으나, 연준 인사의 디스인플레이션 관련 발언 이후 글로벌 금리가 하락하면서 국고채 금리도 일시적으로 반락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을 상회하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리가 재차 상승하자 국내 금리 역시 상승세를 재개하였습니다. 월 중순에는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며 9월 FOMC 금리 인상 기대가 강화된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까지 더해지면서 국고채 금리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WTI가 배럴당 105달러를 상회한 데 이어 ECB와 FOMC, 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강화되면서 단기물을 중심으로 약세가 심화되었습니다. 월 후반에는 국제유가 하락과 연휴를 앞둔 캐리 수요로 금리 상승 압력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추석 연휴 중 주요국 금리 급등이 국내 시장에 반영되면서 월말 국고채 금리는 재차 상승하였습니다.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 대비 17.5bp 상승한 4.015%, 10년 금리는 10.5bp 상승한 4.415%로 마감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중국 A-Share 시장은 대외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시장 유동성 위축으로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술주 중심의 조정이 확대된 가운데 거래대금 감소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추가적인 매도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AI 관련 기술주의 중장기 성장성은 유효하나, 새로운 수요 확대와 투자 여건 개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반등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국 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9월 말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정책이 주택 거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신규주택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펀드는 시장 유동성과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한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4분기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내수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저평가된 경기민감 업종과 소비 관련 종목, 안정적인 배당수익이 기대되는 우량주를 중심으로 투자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채권시장은 10월 금통위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3.50% 수준까지의 인상 경로는 시장금리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대외 긴축 압력과 국제유가·환율 등 대외 여건이 재차 악화될 경우 Terminal Rate가 3.75%까지 높아질 가능성은 금리 안정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AI 투자 사이클을 중심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기 회복력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가 빠르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반면 국제유가 안정과 함께 최근 높아진 추가 긴축 기대가 완화될 경우 가파르게 상승했던 글로벌 금리의 되돌림이 나타나며 국내 금리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10월 국고채 경쟁입찰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5조원 축소된 가운데,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 발행 축소 가능성도 열려 있어 연말 공급 부담은 당초 예상보다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10월 국고채 금리는 9월 급등 이후 일부 되돌림 여지가 있으나, Terminal Rate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국제유가와 대내외 통화정책 기대, 글로벌 금리 흐름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에 국고채 3년 3.75~4.15%, 국고채 10년 4.25~4.65%의 금리 레인지를 전망합니다.

크레딧 시장은 높은 절대금리에 따른 캐리 매력이 투자수요를 지지하고 있으나, 대내외 추가 긴축 경계와 국고채 금리 변동성으로 투자심리 개선은 제한될 전망입니다. 9월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크레딧 스프레드의 급격한 확대가 제한된 만큼 높은 절대금리에 대한 기관의 투자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4분기 대규모 만기 도래와 조달 수요로 은행채 발행 경계가 이어지고, 공사채 역시 공공기관 재무계획과 정책성 자금 조달에 따른 공급 부담이 상대적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은행 수신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경우 시장성 조달 부담이 완화될 수 있어 상위등급의 공급 부담이 일방적으로 확대되기보다는 발행 규모와 시장 소화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반면 여전채와 회사채는 높은 절대금리와 기관 자금 유입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10월 크레딧 시장은 완만한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섹터별 발행 부담과 수요 여건에 따른 차별화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수/국고 3y Spread 30~40bp, 은행/국고 3y Spread 32~42bp, 회사AA-/국고 3y Spread 68~78bp, 여전AA-/국고 3y Spread 62~72bp를 전망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